

에베소서 5:14

“깨어라, 잠자는 자여!”

누군가 깨어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살아있습니다!(2배).

저는 영적 각성과 관련해 저의 가족 이야기를 잠시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 선조들의 이야기를 하고자합니다.

여러분이 조상들에 대해 알고자 하면, 침성분을 분석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도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제 1, 2차 영적 대각성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미 제 가족사에 대해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가 누군가가 깨어났기 때문에 오늘날의 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는 이유입니다.

제 6대 증조부는 윌리엄 테넌트 였습니다.

그는 1673년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 에든버러 대학에 진학하고 1718년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1727년에 그는 로그 칼리지로 알려진 신학교를 설립하여 1차 대각성 운동(1730-40)을 위한 목회자를 길러냈습니다.

로그 칼리지는 이후 뉴저지 대학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이후 뉴저지 주지사 조나단 벨처의 이름을 따서 벨처 칼리지 이름을 바꿀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벨처 주지사는 이것이 좋지 않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을의 모든 상인이 20달러를 지원한 뉴저지의 첫 번째 마을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단 한 마을만이 이 행사에 참석했고, 이곳이 바로 뉴저지의 프린스턴 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학교를 프린스턴이라 지었고, 이후 이 학교는 역사적인 곳이 되었습니다.

윌리엄 테넌트의 자녀들은 모두 당시 Old Lights(보수 기독교)가 아닌 New Lights(진보적 기독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각성 설교자들이었고, 종교적 형식주의를 반대하고, 부흥, 회심 경험,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경험, 경건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윌리엄의 아들 중 한 명인 길버트는 대각성의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설교와 소책자, “회심하지 않은 사역의 위험성”은 매우 혁명적이어서 목회자를 훈련시키는 방법에 대해 교회에 큰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저는 윌리엄 테넌트의 둘째 아들인 윌리엄 테넌트 주니어 (1705년생, 나의 5대 증조할아버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윌리엄 테넌트 주니어는 로그 칼리지를 막 졸업하고 목사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과 같이 영적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목사시험은 고전에 많이 치중해 있었고, 그는 신학 과외 선생님과 라틴어로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큰 소리와 비명을 지르며 쓰러져 죽었습니다.

18세기에는 누군가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네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여러분도 이 네 가지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맥박, 죽음을 나타내는 창백한 얼굴, 대스듀(시체에 맺혀지는 이슬) 리가모티스 (관절과 근육의 경직)

윌리엄 테넌트 주니어는 이 모든 증상을 보였고, 사망이 확인되고 장례식은 다음날로 정해졌습니다.

장례식 전날 다른 의사가 와서 시신을 진찰하고 겨드랑이 아래에 약간의 온기가 느껴져서 다른 의사를 불렀습니다.

또 다른 의사가 그를 진찰했지만 온기를 전혀 느껴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EKG(심전도)와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의사는 관찰에 근거해 - 맥박없음, 창백함, 뻣뻣함과 같은- 다시 사망을 두번째로 선고했습니다.

다음날은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장례식을 위해 사람들이 모였고 관을 닫고 장례를 치르기 직전에 다른 의사가 그를 다시 검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과 길버트는 이 생각에 반대했습니다. 모두가 이미 장례식을 위해 모였고 이미 두 명의 다른 의사에 의해 공식적으로 사망했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눈에 매우 밝은 빛을 비추어 동공이 축소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테스트를 했을 때, 동공이 확장된 채로 남아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눈동자가 살짝 흔들리는 것을 보였고, 잠시 동안 몸이 온몸이 떨리는 현상 후 다시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장례식을 취소하고 따뜻한 수건으로 시신을 감싸고 마침내 그는 깨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음 2년 동안 모든 것을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라틴어가 영어보다 먼저 돌아왔습니다.

만약 그가 깨어나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진짜 죽음을 맞이까지 향후 43년 동안 교회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테넌트 주니어가 깨어났기 때문에 5세대 후손인 제가 오늘 밤에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취시리라”

이 구절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능력, 우리가 과거의 삶을 청산하며,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옷입은 새로운 삶의 능력에 관한 것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 이야기는 윌리엄 테넌트 주니어가 깨어나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 여기에 없었을 것이라는 조금은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이것은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기 때문에, 당신이 살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살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들이 깨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신성한 구원의 사슬입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누가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수양회는 부흥의 불을 밝히고 또 다른 대각성을 위한 씨를 뿌리는 자리입니다!!

윌리엄 테넌트 주니어가 관을 닫기 몇 분 전에 깨어나서 정말 기쁩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깨어나서 너무 기쁩니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취시리라!!

당신은 복음으로 깨어났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났기 때문에 수천 명이 복음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길들여진 기독교, 진부한 기도, 문화에 타협된 교회로 특징지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계시록의 일곱 교회 가운데 행하셨던 것처럼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할 때 교회는 변화와 번신, 갱신과 희망을 가능하게 하는 변곡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에 도달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과 희망을 가져다주십니다.

우리의 깊은 절망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이끌어 줍니다.

불과 5개월 전인 2월에 애즈베리 대학과 애즈베리 신학교 캠퍼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Asbury 각성에 대한 수백만 개의 비디오와 클립 및 게시물이 소셜 미디어에 있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우리가 "사전 부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신성한 임재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 조용히 하시는 일입니다.

(홍목사님에 대하여) - 기도하는 마음.. 기대감.. 커져가는 간절함.

2월 8일 수요일, 정규 예배시간 입니다.

책 미어크립스는 로마서 12장 9-21절 말씀에 기초해 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생되도록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배가 끝났을 때 19명의 학생들이 제단으로 올라와 기도하며 시간을 보냈고,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여느 날처럼 예배 후 예배당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그 19명의 학생들 가운데 계셨고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예배당으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하루가 끝날 무렵 휴즈 강당과 제단은 모인 학생들로 가득차게 되었습니다.

이는 2월 8일부터 23일까지 16일간 계속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빈무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 Z세대 자아정체성

영적 각성에는 내부 코어와 외부 코어가 있습니다.

영적 각성의 내적인 핵심은 AU 캠퍼스에 집중되었고 현재 11세와 26살 사이인 Z세대(1997-2012년생) 가운데 일어난 깊은 동요였습니다.

Z세대는 지금까지의 세대 중 가장 외롭고 절망적인 세대로 특징 지워집니다.

그들은 확실한 닳이 없는 문화적 풍경에 환멸을 느낍니다.

국가의 정치 기구는 망가졌고, 그래서 그들은 나라의 깊은 병폐에 대한 정치적 해결책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 중 다수가 결혼 가정이나 extended family (이혼 후 확장된 가족) 생활에서 깊은 균열을 체험했습니다.

이런 가족 환경은 그들의 삶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많은 친구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엄청난 침체와 쇠퇴를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소속이 없는 소위 "없음"의 선두인 더 큰 밀레니얼 그룹의 영향력 속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특히 Instagram 및 tik tok와 같은 플랫폼은 이 세대에게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Z세대에게 정서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학교가 안전한 곳이었던 세상에서 자랐지만, 지금의 아이들은 이 세대를 깊은 절망감으로 이끄는 학교 총격사건이나 괴롭힘(bully)으로 고통받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그들의 세대는 주위를 둘러보지만 어디에서도 확실성을 보지 못합니다. 성별의 문제는 우리가 항상 구별할 수 있었던 확실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심지어 당신의 성별도 당신이 확실히 알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그들은 희망의 토양에서 자라지 못하고 있으며, 희망의 상실은 그들을 매우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피오이드(아편)에 의존하거나, 성별을 바꾸거나, 성를 실험하면서 자신을 공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청년들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든 이겨낼 것으로 생각하지만, 정작 기독교 가정들조차도 그들의 젊은 자녀들과 함께 이런 문제와 관련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2월 8일 이 절망과 희망없음의 토양에서 피어난 신성한 불꽃을 보아야 합니다 .

나는 주권자 하나님께서 그의 임재의 능력과 복음의 소망으로 이 세대를 어떻게 만나셨는지 생각할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흥 초기에 Asbury University의 많은 학생들이 기독교 대학에 다니면서도 그리스도를 처음 구주로 영접한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 몇 주 동안 급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알겠지만, 부흥이나 영적 각성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 세대를 위해 주권적으로 무언가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셨고 그들에게 큰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이러한 각성이 교회가 아닌 학교에서 시작되는 이유를 묻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는 특정 세대가 더 많이 모이는 곳으로 Z세대에게 다가가기에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2) 극단적인 겸손

“극단적인 겸손”이라는 말은 걱정적인 설교와 감정의 분출을 동반한 매우 시끄러운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이 일어난 장소는 놀랍도록 조용했습니다.

예, 소셜 미디어는 놀라운 예배를 보여주었습니다.

큰 화면도, 유명한 초청강사도, 심지어는 진정한 의미의 설교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실한 지도자인 데이비드 토마스가 있었는데, 그는 때때로 하루에 몇번씩 권고를 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설교가 아닌) 성경 읽기, 회개의 기도, 예배였습니다.

이런 예배는 밤낮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에 외부인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Z세대는 처음 10줄, 그 다음에는 20줄을 예약하기 시작했고, 두 번째 주에는 전체 Hughes 강당이 25세 이하만 예약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를 위해 소중한 공간을 잘 보호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세대 (Gen Z) 가운데, 그들의 공간에 나타나셨습니다.

극단적 겸손은 제단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통곡하는 자들의 겸손이 아니라

희망을 잃은 이 세대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몸을 굽혀 내려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ILLUS: “내가 먼저 갈게” -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지 않은 나를 용서하실까요?”

(3) 영적인 기획

부흥의 외부에는 미국 전역과 전세계에서 참석한 평범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수백 명으로 시작했고 이후에 Hughes 강당의 발코니와 통로에 모여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켄터키 주 월모어라는 이 작은 마을에 수백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찌감치 팀을 꾸려 “극진한 환대”라는 문구를 지침 원칙으로 설정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대학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케빈 브라운에게 자원, 인력, 물리적 공간 등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말 즈음 이 일이 시작되었고 몇 주가 지나가면서 점점 더 증가했습니다.

대학에서는 Hughes 강당 외에는 어떤 시설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Hughes 강당이 한 번에 Z세대를 1,500명 수용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학생들은 아침 저녁으로 다양한 모임에 참석하고 있어서 매일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Hughes 강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또한 월모어에 기도하러 오는 26세 이상의 수만 명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휴즈에 무언가를 “보기” 위해서라면 아무도 우리 캠퍼스에 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모든 공간은 예배와 기도의 공간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캠퍼스 전역에 있을 수십 명의 기도 팀을 훈련하고 배치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Estes Chapel을 여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Estes가 채워졌을 때 우리는 캠퍼스, 체육관 및 카페테리아의 다른 예배당을 포함하여 다른 공간을 채웠습니다.

우리는 모든 공간에 제단을 두었습니다.

그 16일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월모어에 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새로 만들어진 위키백과 페이지에는 약 7만 명이 왔다고 나와 있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더 많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드러난 것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깊은 영적 굶주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영적인 부담감, 응답되지 않는 기도, 중독의 문제, 그리스도를 주요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을 갖고 월모어로 모여들었습니다.

예배를 위해 문을 열었을 때 나는 문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날 기쁨과 기대로 가득 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부흥기간 동안 제단에 무릎을 꿇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제가 놀란 것 중 하나는 이 모든 것들이 종파를 초월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많은 로마 카톨릭 신자들이 제단에 와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오순절 교회 성도들도 있었고,

주류 기독교인과 독립적인 기독교인들이 아무런 꺼리낌없이 밤낮으로 함께 제단에서 기도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공간은 다음 모임을 위해 화장실을 청소하고, 예배 밴드를 교체하고, 바닥 청소를 하는 시간을 두었고, 하루 중 일정 기간 동안 폐쇄되었습니다.

이들 중 헌신적인 기도의 용사들이 주야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특히 그 휴즈 홀 안에는 자리가 비는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기도처를 만들어, 하나는 대학에, 다른 하나는 신학교에 두어 중보기도자들이 기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외부 손님을 받지 않고, 오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공간에서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애즈베리 신학교가 주체가 되어 일어난 외부적인 일들은 영적 부흥의 또다른 측면이었습니다.

절박함과 절망이 한 세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했습니다.

2월 20일(월요일) 거리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부흥의 시작은 2월 8일 이었습니다.)

월모어 도시에 자동차가 너무 많아서 시에서 들어오는 주요 도로에 거대한 교통 표지판을 내걸었습니다: 부흥집회 만원!

그들은 방송 채널에서 도시에 들어오지 말라고 방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사인 바로 앞에 줄어서 기다리며 또 다른 사진을 찍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두 번째 주에, 제 사무실에서 또다시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는 제 사무실이 Hughes 강당 바로 건너편에 있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Awaken the Dawn(새벽을 깨우라)이라는 모임에서 손님을 계속 수용할 수 있도록 3,000인용 텐트를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월모어 이렇게 많은 차량을 허용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도시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가까운 위치를 고려해야 했습니다.

한때 Ichthus라는 음악 축제를 주최했던 월모어의 대규모 농장을 물색했고, 우리는 필요한 기간 동안 농장을 임대하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주인과 두 번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인근의 큰 교회가 그들의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고, 도시 안팎으로 끝없는 교회 셔틀 버스가 줄지어 섰습니다.

단지 몇시간의 대화만에 이 모든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월요일과 화요일에 이 문제에 대해 기도했을 때, 놀랍게도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우리를 대학기도의 날 (지난 주말, 앤드류 피터슨) 주의 목요일에 공개 집회를 마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무려 4100개가 넘는 학교가 대규모 동시 방송으로 함께 연결되었습니다.

(4) 플랫폼 제거의 단순성

영적 각성은 아주 간단한 예배에서 일어났습니다.

워십 밴드나 디지털 프로젝션도 없었고, 어쿠스틱 기타와 가수 몇 명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내내 이런 식으로 예배드렸습니다.

유명한 기독교인들이 와서 부흥집회를 한다거나 하는 어떤 플랫폼도 없었습니다.

부흥은 간단했고 끝까지 단순했습니다.

영적 부흥의 마지막 예배는 2월 23일 목요일에 열렸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와서 보라!"에서 "가서 전하라!"로 변화하시는 강력한 인도하심을 느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영적으로 굶주린 모든 사람들을 켄터키 주 월모어로 오라고 말하는 것은 좋은 영적 전략이 아닐것입니다.

우리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2월 23일은 전국 대학생 기도의 날의 200주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공공 예배의 마지막 날로 정했습니다.

애즈베리 대학은 거의 2년 전에 이미 이 기도의 장소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북미 전역의 1,400개가 넘는 대학들이 이 모임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예배는 전 세계에 걸쳐 기독교 방송망으로 중계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북미의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가들- 릭워렌과 프란시스 찬-을 섭외했습니다.

우리는 영적 각성의 진정성과 단순성을 위해서 전체 이벤트의 모든 형식을 없애고 단순하게 해야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청된 기독교 강사들에게 각각 연락하여 그들이 물러나고 Z세대에게 연설의 자리를 양보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영적 각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유명한 강사들 없이 단순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5) 글로벌 가능성

이제 우리는 영적 부흥의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적인 확산입니다. "와서 보라"에서 "가서 전하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교회들과 학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이야기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파송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름입니다... 당신은 세계적인 영적부흥의 선봉대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1,200명 이상의 아시아 Z세대가 깨어나 세계로 선교하기 위해 모인 방콕의 Arise Asia(아시아여 일어나라!) 모임에서 방금 돌아왔습니다.

Kalitha Cume 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